



KOPEC 아·태전략포럼 제5차회의  
주최: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KOPEC)  
일시: 2006년 11월 9일 07:00~09:00  
장소: 소공동 롯데호텔 버클리룸

## 2006년 아·태지역협력체의 동향 및 전망

- ASEN+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-

서정인

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 동남아과장

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KOPEC)

# 동아시아 협력

## 1. ASEAN+3 정상회의

### □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발전

- 2001년 ASEAN+3 정상회의시(브루나이)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 그룹(EAVG) 보고서는 「평화·번영·발전(3P)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」 비전 제시
  - 바람직한 동아시아의 미래상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
  - 현 ASEAN+3 체제에서 나아가 각국이 대등하게 참가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개념
    - ※ EAVG는 1998년 ASEAN+3 정상회의시 김대중 전대통령이 제안하여 13개국 저명인사 26명으로 설립(우리측은 한승주 전외교장관과 이경태 KIEP 원장 참가)
- 2002년 ASEAN+3 정상회의시(캄보디아) 채택된 동아시아 연구 그룹(EASG) 최종보고서는 EAVG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
  - 구체적인 26개 협력사업(단기 17개, 중장기 9개)을 제시하여 현재 실시중
  -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도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
    - ※ EASG는 2000년 ASEAN+3 정상회의시 김대중 전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되어, 13개국 정부인사(SOM 및 DG급)들의 2년간 활동결과로 최종보고서 제출(한국 및 ASEAN 상임위 의장국이 공동의장국 역할)

## □ 분야별 진전 상황

### ○ 제도적 협력

-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 개최 합의는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중요한 정치적 모멘텀 제공
-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과정에서 싱크탱크로서 동아시아포럼(EAF)과 동아시아싱크탱크 네트워크(NEAT)의 역할 기대
- ASEAN+3 정상회의 산하에 45개 정부간 협의체 구성(13개 각료회의, 15개 고위관리회의, 3개 국장급회의, 14개 실무급회의)

### ○ 정치·안보 협력

- 1999년 ASEAN+3 정상회의시 「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」에서 정치·안보 분야 및 초국가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지향
- ASEAN+3 정부간 협의체(정상회의, 외교장관회의, 고위관리회의 등)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(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, 2002년 테러리즘에 관한 선언 등)
- ASEAN 지역포럼(ARF)이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정부간 안보 대화체로 정착화

### ○ 경제 협력

- ASEAN+3 체제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경제관련 협력은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의 원동력 제공
- 양자 및 다자간 FTA의 활발한 추진을 비롯하여,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(EAFTA) 연구 보고(2006.8월)

- 「치앙마이 이니셔티브」(CMI)를 통한 스왑협정 체결(현재 ASEAN+3 국가간 총 17건 약 750억불 규모) 등 금융위기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
  - ※ 한국은 7개국과 220억불 규모 체결
- 「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」(ABMI)로 아시아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한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노력

○ 사회·문화 협력

- 정치·안보 및 경제 협력보다 상대적으로 가시적 성과나 실질적 효용성이란 측면에서 진척상황이 더딘 분야
- 역내 경제개발 격차 해소 노력 및 인적자원 개발 강화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정체성 함양 노력중
- 기타 문화교류, 교육기관간 공동노력, 예술 및 문화재 보존, 시민 및 NGO의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관심

□ 각 국의 입장

- ASEAN+3 체제가 나아가야 할 장기목표로서 EAc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,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(중국) 현재 진행중인 양자 및 다자간 FTA 논의 등 경제적 통합 주력 및 민간 분야의 참여 유도 필요성 강조
- (일본) 기능적 협력강화를 통해 기반을 공고히 하고, 동 과정에 역외 협력파트너(인도, 호주, 뉴질랜드, 미국 등)의 포함 필요성 지적
- (ASEAN) EAc 구상의 조기 추진이 ASEAN Community 실현 등 ASEAN 자체의 협력강화 추진에 혼선을 줄 가능성 우려

## 2.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

### □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 출범 배경

- 2002년 캄보디아 ASEAN+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연구 그룹(EASG) 최종보고서상의 9개 중·장기 협력사업의 하나
- 최종보고서상 EAS에 대한 인식
  -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+3의 바람직한 장기목표로, ASEAN+3 틀의 실제적인 안정수준 위에서 추진
  - 발전적(evolutionary), 점진적(step-by-step and building -block)으로 진행
- EAS가 장기 목표임에도 불구하고, 2005년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된 것은 예상외로 빠른 진전으로 평가

### □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t Asia Summit ; EAS) 개최

- 04.11월말 제8차 ASEAN+3 정상회의(라오스)시 말련의 적극적 희망에 따라 「제1차 EAS」를 05.12.13-14간 말련(의장국) 개최 제9차 ASEAN+3 정상회의 계기에 back to back으로 개최하는데 합의
  - 04.11월말 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만 해도 인니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EAS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나, 말련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으로 일단 합의
- 05.12.14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
  - 참가국들은 앞으로 EAS를 역내 공통현안과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으로 활용하는데 대해 공감하였으며, 역내 공통현안으로 조류인플루엔자, 에너지 협력, 테러, 해적, 초국가적 문제 등을 거론
  - ※ EAS는 'leader-driven forum'이며 Top-down 방식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라는 데 대해 대부분의 EAS 회원국들이 공감

- 우리측은 EAS에서 우선 해적, 질병, 테러, 개발격차 등 역내 공동문제를 협의해 나가되, 장기적으로는 공동체 형성(coummunity building) 문제도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
- 참가국들은 EAS가 개방적, 포괄적, 외부지향적 협의체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으며, 다수 국가들이 미국, 러시아, EU 등의 EAS 참여를 기대
  - ※ 그러나 ASEAN은 2006년 5월 개최 ASEAN 외무장관회의(AMN)에서 당분간 EAS 참가국을 현행대로 유지기로 합의함으로써 러시아 등이 신규로 참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ASEAN 의장국 및 사무국이 EAS 후속조치 조정 역할을 수행

#### □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예정(2006.12.13, Cebu)

- o 당초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는 방향으로 참가국간에 의견이 수렴되었으나, 2005.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시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제안으로 2006년 12월에 제2차 동아시아 정상 회의를 개최기로 함으로써 매년 개최로 선회
- o 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① 에너지, ② 금융, ③ 교육, ④ 조류인플루엔자, ⑤ 재난 대응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 예정

/끝/